

## 크리스찬의 축복 (2)

신학박사 조 덕운

### 성경 말씀: 누가복음 6:20-23 [흠정역]

- 20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 4. 약속하신 축복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의 설교에서 다음 세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 1)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20절]
- 2) 풍족함과 기쁨 [21절]
- 3) 대언자의 보상을 하늘에서 받을 것 [22-23절]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가지 약속하신 축복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1)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킹제임스 성경에서 'Kingdom of God'으로 표현된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왕국'의 개념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읽는 사람이 이 나라가 왕 되신 주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이해하려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되어야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러 명의 사사들, 즉 재판관 및 백성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300여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고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이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소명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실패하였고, 솔로몬

이후에는 백성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77번 나오는데 그 중 55번이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셨을 때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즐거운 기대감으로 환영하였습니다. 헤롯왕과 그의 추종 세력은 이 왕국의 메시지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권력을 갖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된다는 이 메시지에 놀라면서도 이를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약속은 이들에게 훌륭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변혁을 통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와 헤롯왕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바로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러한 정치적 변혁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백성들의 이렇게 간절한 이스라엘 국가 회복의 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억압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이 2차 대전의 진전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여 조선을 비롯한 피식민 국가들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될 것인가 간절하게 고대하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변혁을 통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은 모든 기독교 국가들에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델 기도를 다시 살펴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기대와 소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먼 훗날,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만을 염두에 둔 가르침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에, 즉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1세기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땅에 구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소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다음 여러 영역에서 수립되고 흥왕하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 개인의 생활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가정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교회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지역사회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우실 천년 왕국으로 수립될 것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쓴 서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개인 생활과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르게 수립하고 키워 나가야 하는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으며,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도와 안내를 받으면서 이 왕국의 확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첫 수세기 동안에 그 왕국은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하나님 왕국의 파급은 개인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구약 시절에 이미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대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에스겔36:27]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구현될 하나님 왕국의 형태가 눈으로 직접 여기,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개인 생활과 가정들과 교회들과 지역 사회들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국 확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0-21]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을 지역사회와 국가사회로 연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가 속한 커뮤니티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사회 통치 과정들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교회와 신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금기시하며 그러한 참여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관망자적인 역할을 교회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 볼때에 이러한 관망자적, 피동적 또는 패배자적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창세기 19:12-29].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 오늘날도 이라크에 아직 존재하는 니느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셔서 왕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암몬, 두로, 이집트, 요르단, 바빌론 등의 국가들과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과 저주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예루살렘 등의 도시들에 대하여 비판과 다가올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10:13-14, 마태 23:3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들과 국가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들여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수립되고 번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과 교역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원칙들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당연합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갈구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영국의 식민지 수탈 및 억압 정책에 맞서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수립된 참된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분들은 거의 모두 목사들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갓 탄생한 나라는 워싱턴 장군이 지휘한 3년여의 힘겨운 독립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온전히 수립되었습니다. 건국한지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국은 노예 제도의 문제로 남북 전쟁을 겪게 되지만 링컨 대통령과 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분할되지 않고 한 국가[Union]로 남아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으로서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정치 세계는 추악한 탐욕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으로 표방되는 소위 'Deep State'에 의하여 건국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Donald Trump라는 백만장자를 일으켜 세우시어 2016년 대선에서 부패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제45대 대통령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번 2020년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표방하는 선의 세력과 사탄의 무리에 의해 조종되는 악의 세력간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과 조지 소로스 등의 사악한 좌파 자본가들, 그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언론과 사이버 미디어 업주들과 결탁하여 중국 바이러스를 온 세계에 퍼트려서 사회를 말할 수 없는 혼돈에 빠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전자 개표 시스템의 광범위한 설치 운영, 그리고 대규모 개표 조작 행위등을 통하여 이번 선거를 조 바이든이 승리하도록 범죄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마귀의 세력으로서 미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할 대상인 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11-12]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러한 악의 세력의 의도를 미리 예견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조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사법적 조치들로 인하여 선거 결과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단일 임기의 대통령으로 세우시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트럼프 재선 후에 새로 태어날 미국은 모든 세계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밝은 모범과 챔피언으로 굳게 서서 중공과 북한 그리고 이란등의 악의 세력을 견제 및 분쇄함으로써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공산주의가

붕괴하였듯이 악의 축들이 온전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그러한 결과를 위해 기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대결은 더욱 극명해질 것입니다. 종국에는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단숨에 멸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세계의 모든 권력과 지도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굴복하면서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환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주님께 반대하거나 대항한다면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15-18]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초림의 소명을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면서 성취하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지구 상의 어떤 나라도 그분에게 원수로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오직 처참한 멸망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환영하는 나라, 그분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가 활발하게 살아 작용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다, 충성된 종들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자주 외는 모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나님의 왕국이 수립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나라와 온 세상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지 외워서 의미없이 반복하라는 기도가 아니며, 매일 그러한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가 각자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함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엄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3부에 계속]